



순창을 전국 최고의 흑염소 고장으로 키우기 위한 순창군의 청사진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순창이 흑염소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순창군, 흑염소 메카 급부상

사육두수 1만3700두로 전북도내 1위 차지... 내년 최대 2만두 확대키로

순창을 전국 최고의 흑염소 고장으로 키우기 위한 순창군의 청사진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순창이 흑염소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말 순창군 흑염소 사육두수가 1만3,700두로 1만두를 돌파해 전라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5년 7,000두를 돌파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흑염소 사육농가도 200농가로 급증했다. 군은 내년까지 최대 2만두까지 흑염소 사육두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2억여원을 투자해, 흑염소 축사현대

화 사육기반 확충과 고품질의 흑염소 생산·유통 차별화 도모를 위해 토종 흑염소 종축구입 지원, EM생균제 보급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흑염소 소비 인구가 확대되면서 아직까지 유통업체 요구량의 50%정도 만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전망도 밝아 농민들의 소득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기반확대와 함께 유통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군은 흑염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업농가를 내년까지 20호까지 육성할 계획이

다. 또 관내 흑염소 취급 식당에 군에서 개발한 다양한 레시피를 보급해 순창군의 대표요리로 키워 나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떡갈비 레시피 9종 국물요리 레시피 3종을 개발해 기술 이전을 실시했으며 대대성환 치유에도 효과가 있는 순창 흑염소와 약초소스를 활용한 '순창약념밥상' 식단도 개발을 완료하고 보급을 앞두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흑염소를 활용한 체험관광을 통해 6차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채택

의회 임시회 통해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중환)는 제212회 임시회를 통해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대해 분별없는 쌀 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

려는 불온한 처사로 규정하고, 환수조치 계획에 대한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했다. 환수대상은 공공비축미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이며, 1등급 40kg 포대별 기준으로 860원씩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

해 전국의 농민단체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실패한 쌀값 정책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중환 위원장은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공공비축미 환수조치 계획은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타당행정의 전형으로, 환수조치 계획 철회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민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 육성 본격화

전문가 초청 정책 간담회 열어

순창군이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발효미생물산업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먼저 군은 지난 19일 장류연구구조사 세미나실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과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에서 김재천 장류사업소장은 "미생물 산업은 식품산업부터 의약품산업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 블루오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순창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소스산업과 더불어 발효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한국식품정보원 나혜진 소장은 국내 발효미생물 산업 시장 조사를 해 본 결과 "발효 식품 기업에서 쓰이고 있는 많은 미생물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국내 토종미생물 산업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류사업소 김현영 박사는 "국내 토종미생물의 발굴 및 보존은 세균부터 곰팡이까지 국제 프로젝트로



추진되어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산업화율은 낮은편이다"라고 했으며, "산업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생물 자원을 산업화로 연결시켜주는 지원시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도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노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장내 미생물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대변을 통한 인간질병 치유, 유용 미생물 생산하는 cGMP 시설 건립 등

다양한 장내 미생물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박사는 "학계에서도 장내 미생물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사업으로 예상된다"며 "장내 미생물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산학연관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발효미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생물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마트 관광 홍보단 발대식

주요 관광지 및 맛집 등 SNS·블로그 통해 전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 관광명소와 맛집, 숙박 등 여행정보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스마트 관광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20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박우정 군수와 스마트 관광 홍보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은 고창군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 숙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직접 답사해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전하 주는 여행기자단이다.

군은 여행에 관심 있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해 스마트 관광홍보단을 선발했으며 이날 고창군 여행기자증을 수여받았다.

스마트 관광홍보단은 올 한 해 지역 명소 등을 답사하고 탐방하며 이를 고창군 블로그와 개인블

로그 등에 포스팅해 고창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에게는 고창군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연말에 활동 우수자에 대해 표창도 수여된다.

박우정 군수는 "최근 관광객들은 여행을 선택하거나 현지에 와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만큼 스마트 관광 홍보단을 통해 인터넷과 SNS에 고창군 홍보가 적극 이뤄진다면 지역을 더욱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도 좋은 정보를 얻어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생생하고 재미있는 홍보로 한국인의 분향, 아름다움과 청정한 명품 고창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선대토탈리클럽, 백미 30포 전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사선대토탈리클럽(회장 임철훈)은 지난 20일 관촌면 맞춤형 복지팀과 공동으로 소외가구를 찾아 나눔화회를 실천했다.

로타리클럽과 맞춤형 복지팀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일환으로 관촌면과 운암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30가구를 선정해 백미 20kg 30포(12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회원 40여명이 심시일만 모은 성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소외계층을 추천받아 진행했으며 지난해 25가구를 대상으로 2천5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철훈 회장은 "불행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명절에 더욱 소외받기 쉬운 이웃을 찾아 정성과 사랑을 나눠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진홍영 기자



남원경찰, 교통사고 예방 활동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운봉파출소(소장 조유억)는 겨울철 농촌지역 유일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사발이 운전자 상대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앞장 쓰고 있다.

최근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길거리 예방홍보를 병행 실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교통이 불편하여 오토바이, 사발이 운전자들이 늘고 있으며, 아침, 저녁 운행시 사고가 발생하여 마을 단위 순찰활동을 통한 경로당을 방문 교통사고 예방과 노약자 상대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폭설 교통사고 예방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순화파출소(소장 박인규)에서는 지난 폭설에 도로 관리청과 지자체에서 미처 손질이 미치지 못하는 관내 지선도로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하여 교통사고 및 어르신들 낙상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순창을 백신리 오르막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병원에 가기위해 체인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 중 미끄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모래와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어서 운행도록 조치했다.

당시 운전자는 눈이 쏟아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후 병원으로 향했다.

박인규 소장은 "폭설시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급경사 도로의 운행은 차체로 담부하였으므로 앞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순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고추·농공 재배 지원 사업비 20억원 확보

순창군이 올해 장류원료인 고추 및 농공 재배 지원 사업비로 군비 20억원을 확보해 생산 및 유통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3월 20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과 수매결과를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순창은 장류산업이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장류업체의 신뢰받는 제품 생산을 통해 순창의 장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장류원료 재배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장류업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무료 건강검진 실시·의료사각지대 해소

임실군은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이용 정보가 취약한 40세 미만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관리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선정한 20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와 협진으로 내달 1일부터 3월까지 읍·

면 순회하며 체중, 혈압 등의 기초 검사부터 간기능, B형간염, 자궁암, 폐질환 등 총 19항목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상 소견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체계적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검진 일정이나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640-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세계희귀절지동물특별전 내달 12일까지 연장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개최하는 겨울방학특별기획 '세계희귀절지동물특별전'을 2월 12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1월 22일까지 전시를 계획하였지만, 다양한 체험과 양질의 전시해설로 재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 성황을 이루어 더 많은 관람객들에게 특별전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전은 지구상에서 생물종이 가장 많은 절지동물을 주제로 기획한 전시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전 세계의 희귀한 절지동물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연학습체험전으로 '희귀절지동물전시', '아광관갈매침', '오색오색동굴체험', '곤충놀이터', '세계희귀곤충표본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곤충놀이터는 각종 수서곤충과 수서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터치풀과 장수풍뎠이와 사슴벌레를 직접 만져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딱정벌레체험존, 곤충낚시터 등이 있어 아이들의 생태 놀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